ISSUE BRIEF
Public Governance
OECD/KOREA Policy Centre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www.oecdkorea.org
2008. 7.31(목)/ No. 17

한눈에 보는 OECD 지역개발 지표

1. 개요
2. 지역 집중화 현상 (인구, GDP 등)
3. 부문별 지역 불균형
4. 지역성장을 위한 주요 동인

1. 개요

o OECD에서는 지역개발을 국가의 경제성장 및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

o OECD 공공관리/지역개발국(*Public Governance and Territorial Development*)은 지역개발정책위원회(TDPC)를 설립, 수년간에 걸쳐 지역개발 통계지표 작성

- "한눈에 보는 OECD 지역 2007 (OECD Regions at a Glance)" 발간

o OECD 국가경제성장을 비교할 때 지역별 경제성과는 국가지표에 포함

- 평균 국가경제성장을 웃도는 성과를 달성한 지역 혹은 성장이 뒤처진 지역에 대한 별도의 통계가 필요

o 본지는 상기 자료를 토대로 지역개발의 거시경제지표로서 OECD 국가 인구, GDP, 산업 등의 집중화에 중점

- 평균적으로 OECD 국가간 차이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지역간 차이를 검토함으로써,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동인들을 살펴보고자 함

2. 지역 집중화현상 (Geographic Concentration)

(1) 인구집중화

o OECD 국가 인구의 약 40%가 10%의 지역에 집중화 되어 있음 ('03년)

o OECD 국가간 인구 분포도 비교

- 캐나다, 호주, 아이슬란드, 한국 등에서 높은 인구 집중화 현상 **[그림 1]**

o 인구분포는 경제활동과 서비스 기회가 있는 도시 지역에 집중됨

- 거의 절반가량의 OECD인구(47%)가 도시지역에 거주 **[그림 2]**

그림 1. 인구의 지리적 집중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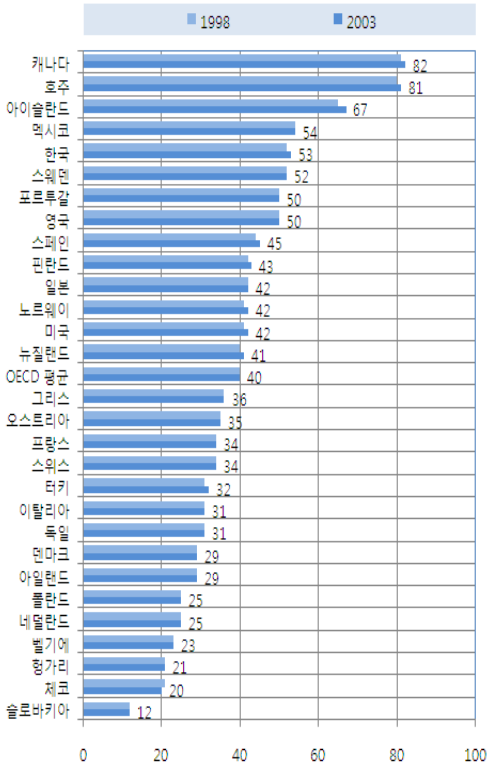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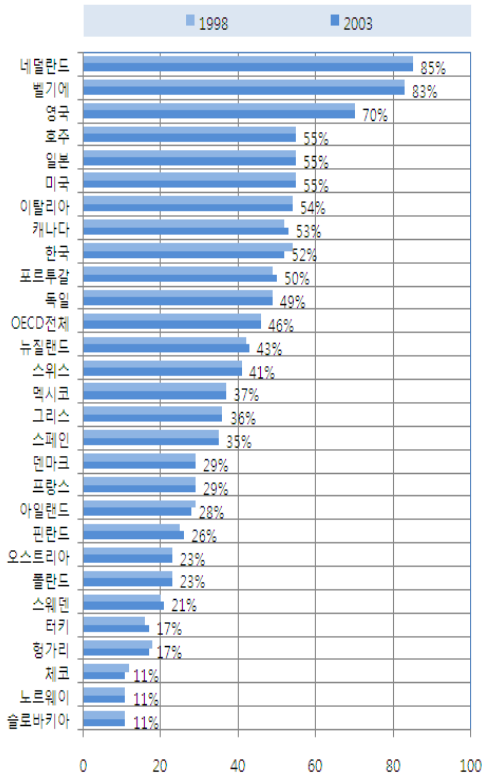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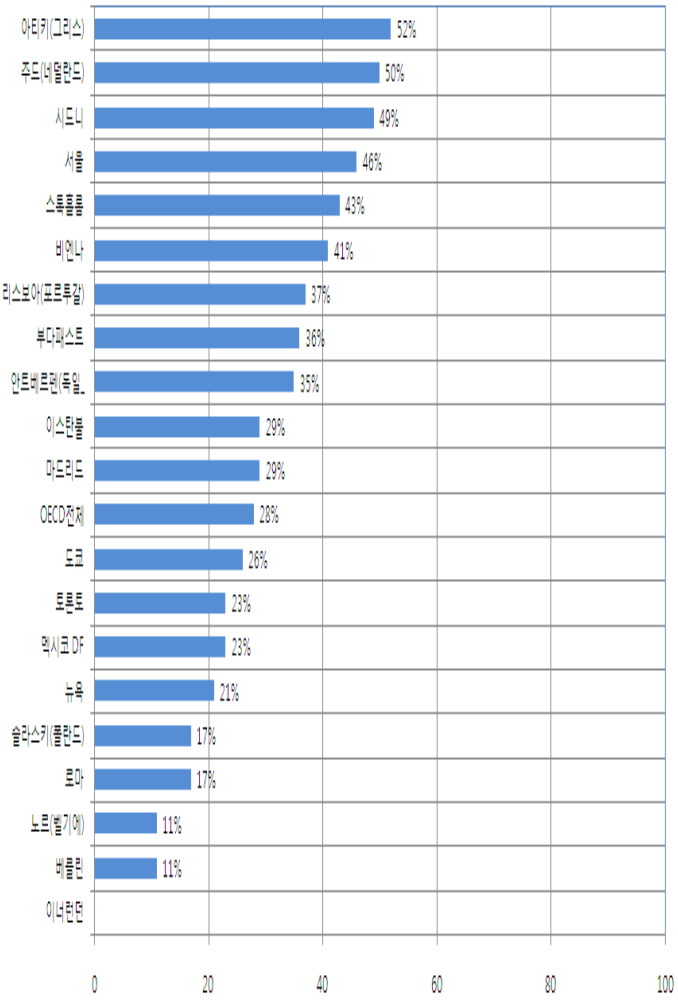
그림 2. 도시우세지역(Predominantly urban regions)에의 인구집중비율 (%)



o 인구집중 원인은 집적경제(agglomeration economies)의 혜택인 기업 집군에 따른 취업기회 증가에 있음

- 반면, 과도한 밀집에 따른 환경오염, 교통체증, 부동산 가격 증가 등으로 탈집적화 현상도 보임 **[그림 3]**

그림 3. 150만명 이상의 대도시거주 인구 비율('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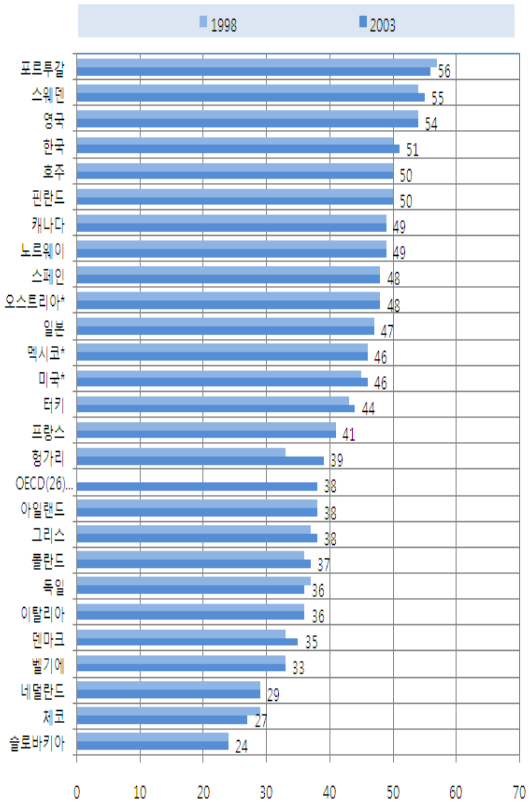


(2) GDP 집중화

o OECD GDP의 38%가 10% 지역에서 창출 ('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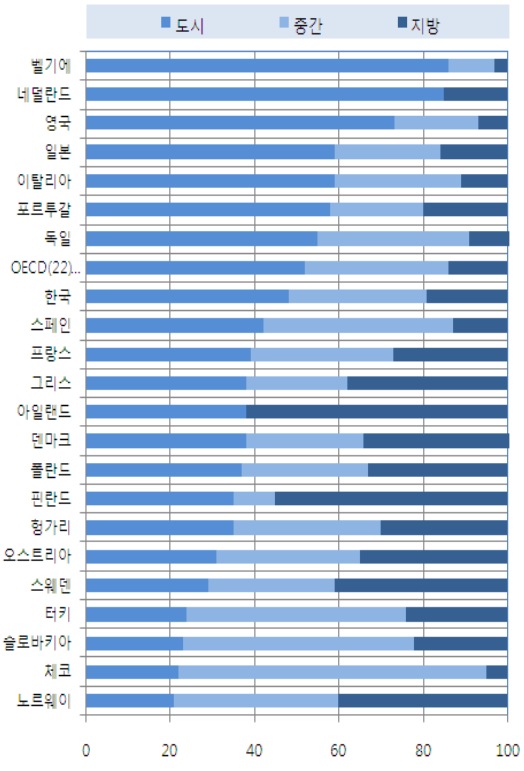
- GDP 집중화는 포르투갈(56%), 스웨덴(55%), 영국(54%), 한국(51%)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4]**

그림 4. GDP의 지리적 집중지수 ('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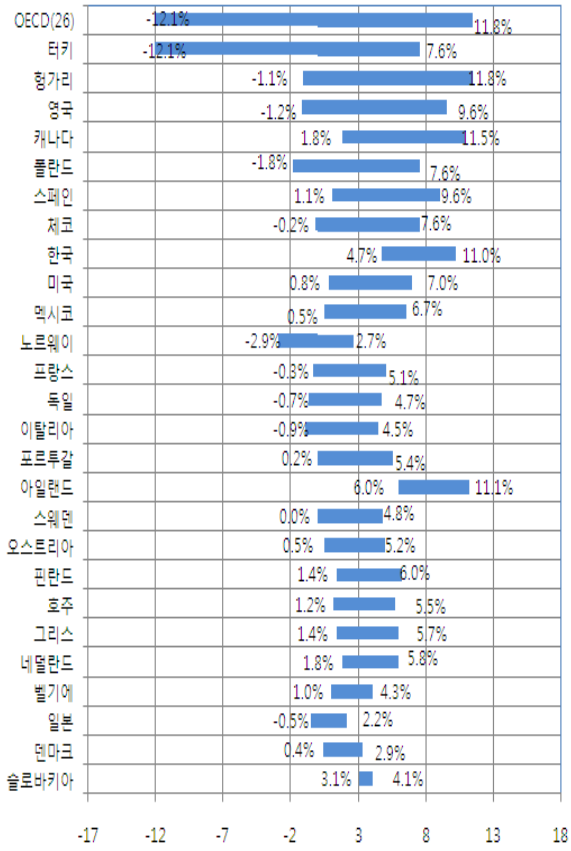
- OECD 지역의 약 53% GDP가 도시 지역에 집중됨

그림 5. 도시 수준별 국가 GDP 분포도(%)



o '98~'03년 동안 가장 빠른 성장과 느린 성장을 경험한 지역간 격차도 크게 나타남

그림 6. 지역간 연간GDP 성장 격차범위(Range)



OECD국가의 인구 및 GDP의 지리적 집중화를 측정한 결과, GDP가 인구에 비해 더 집중되는 현상을 보임
- 단, 한국만은 인구의 집중이 더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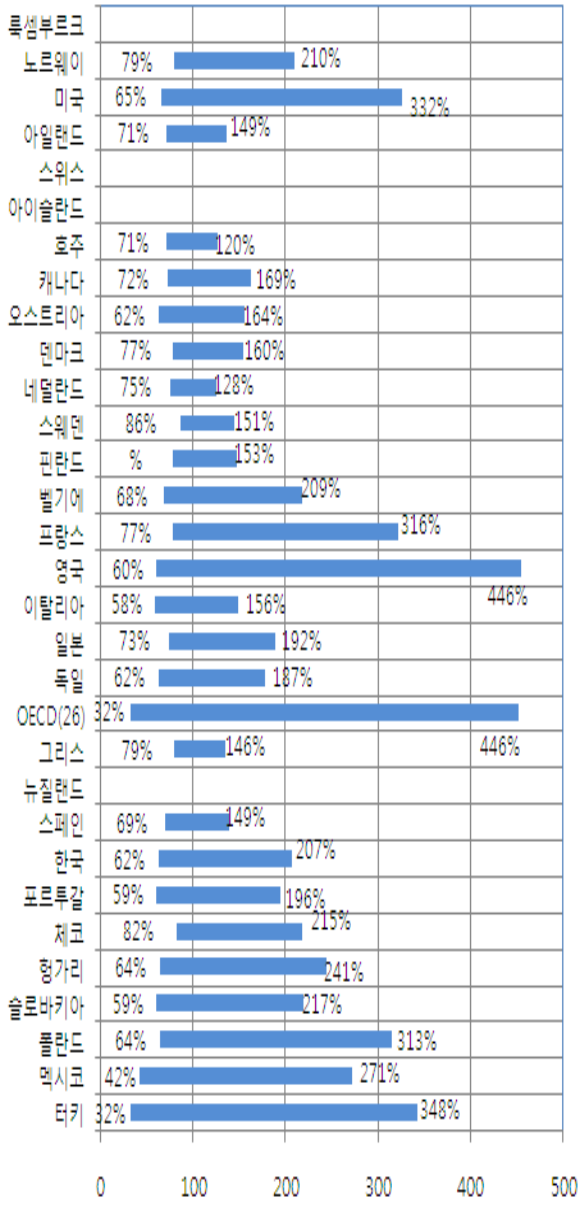
3. 지역불균형(Regional Disparities)

(1) 1인당 GDP 수준

o OECD 국가간 1인당 GDP 격차[1]는 다양하나, 이러한 차이는 동일 국가 내에서의 지역간 차이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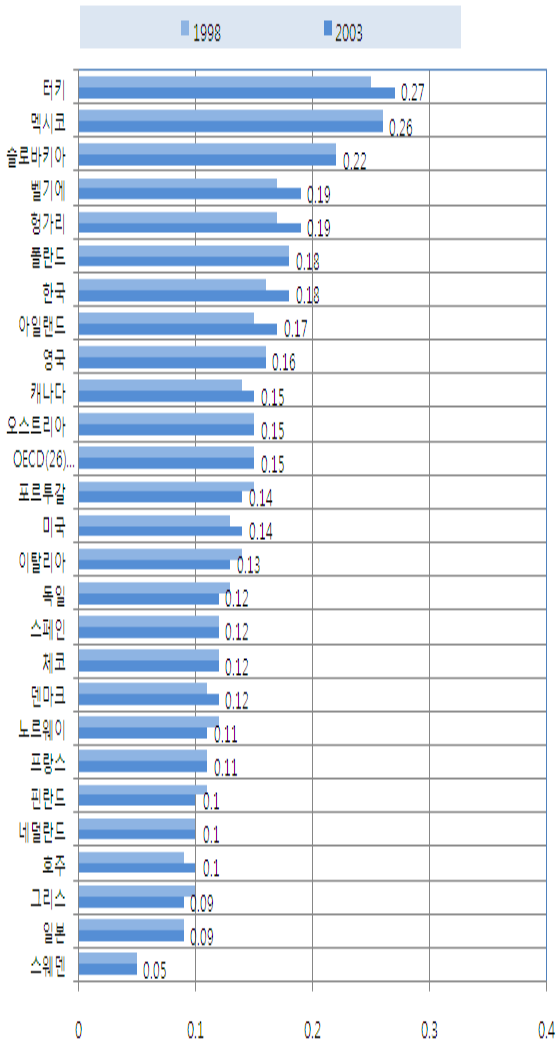
1) 룩셈부르크(USD 53,390)는 OECD 평균(USD 24,824)의 2배, 터키(USD 6,910)의 7배에 달함

그림 7. 국가평균을 기준으로 1인당 GDP 지역간 격차범위(range) ('03년 기준)



o 1인당 GDP 관련 지역간 불균형은 터키, 멕시코, 슬로바키아, 벨기에, 헝가리 등에서 높게 나타나며, 한국도 그 뒤를 이어 높은 지역간 불균형을 보임 **[그림 8]**

그림 8. 각국의 지역간 1인당 GDP 불균형 지수(Gini)[2)]



(2) 노동생산성 (Labour Productivity)

o 경제성과의 중요한 지표인 노동생산성도 OECD 국가별[3)]로 다양하지만, 국가내 지역간의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경우, 콜럼비아지역이 국가평균보다 2.8배 이상인 반면, 몬타나 지역은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침
- 이러한 현상은 일본, 멕시코, 프랑스, 캐나다, 한국 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2) 격차범위(Range)는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간의 격차 범위를 나타내는 반면, 지니 지수(Gini index)는 모든 지역간의 불균형을 나타냄

3) 룩셈부르크는 OECD 평균보다 47% 더 높으며, 터키의 경우 평균보다 39%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남 ('03년 기준)

그림 9. 1인노동인구당 GDP 지역 격차범위 (r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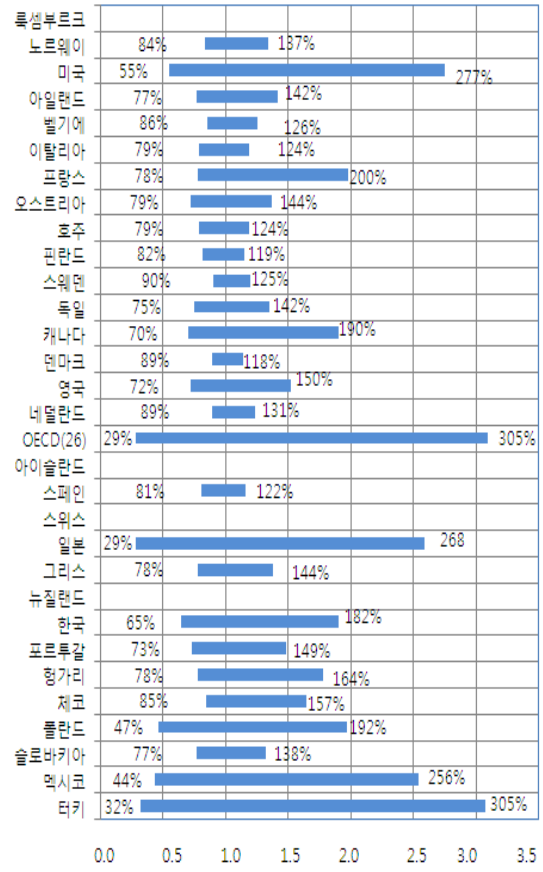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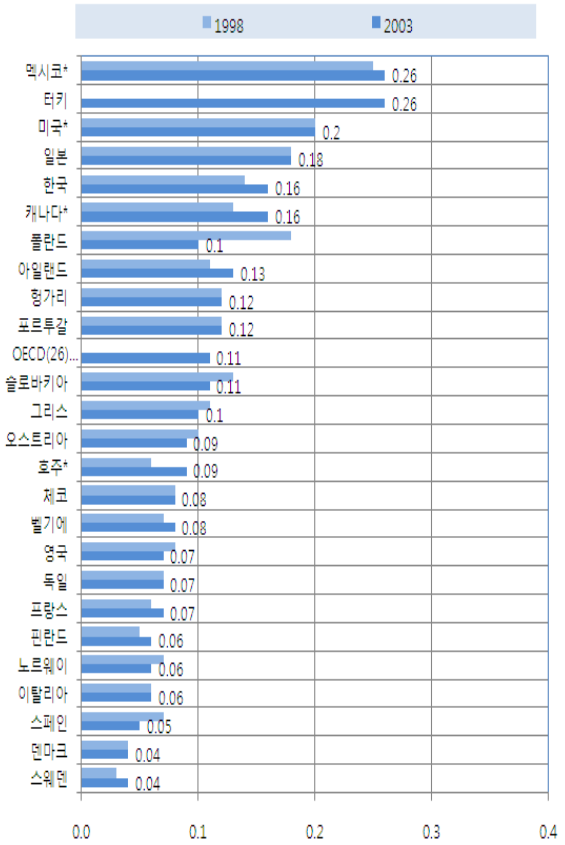


그림 10. 1인당노동인구 GDP 불균형 지수(Gini)



o 단위노동당 GDP 성장률은 지역 경쟁력을 측정하기 위한 주요한 지표로 사용됨

- 장기적인 지역성장을 위해서는 단위 노동당 생산성 증가가 중요

o '98~'03년 동안 OECD 지역의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1.9% 정도로 증가해 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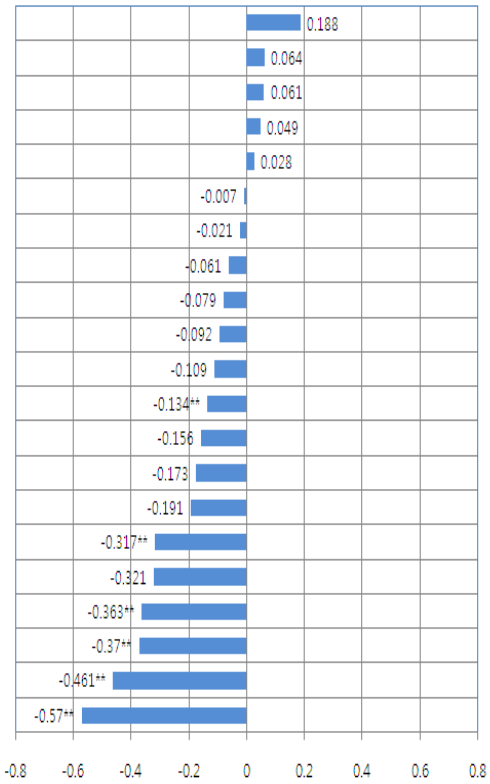
- 노르웨이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의 지역노동생산성은 평균적으로 증가함

o 노동생산성의 증가는 취업률과 GDP의 증가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더욱 장기적이며 바람직함

- 생산성증가가 취업률 증가와 동반할 경우, 상관관계는 긍정, 고용 감소에 따른 생산성 증가는 부정적으로 나타남

- 호주, 체코, 그리스, 한국, 이탈리아 등에서 부정적 상관계수를 보임

그림 11. GDP와 고용 성장 간 상관관계('98~'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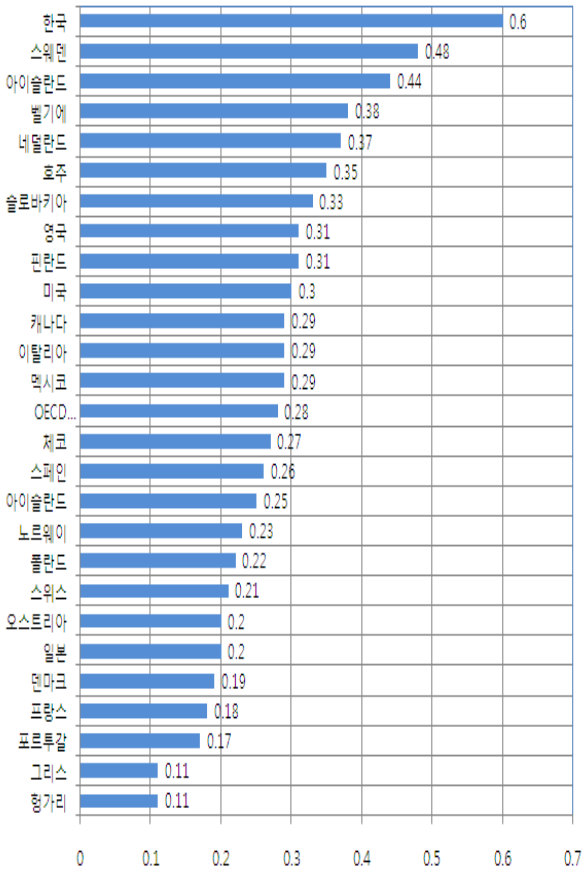
(3) 산업 전문성 (specialisation)

o 전문성은 Balassa-Hoover 지수로 측정됨

- 한 지역에서의 산업비중과 전체 국가에서의 비중간 비율로서 지수가 높을수록 전문화되어 있는 지역임

o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지역 전문성을 보인 반면, 지역간 전문성의 편차도 크게 나타남

그림 12. 지역간 산업전문성 불균형 지수(Gini)



o 가장 높은 전문성을 보인 분야는 자금중개기능 (financial intermediation)과 건축(construction) 등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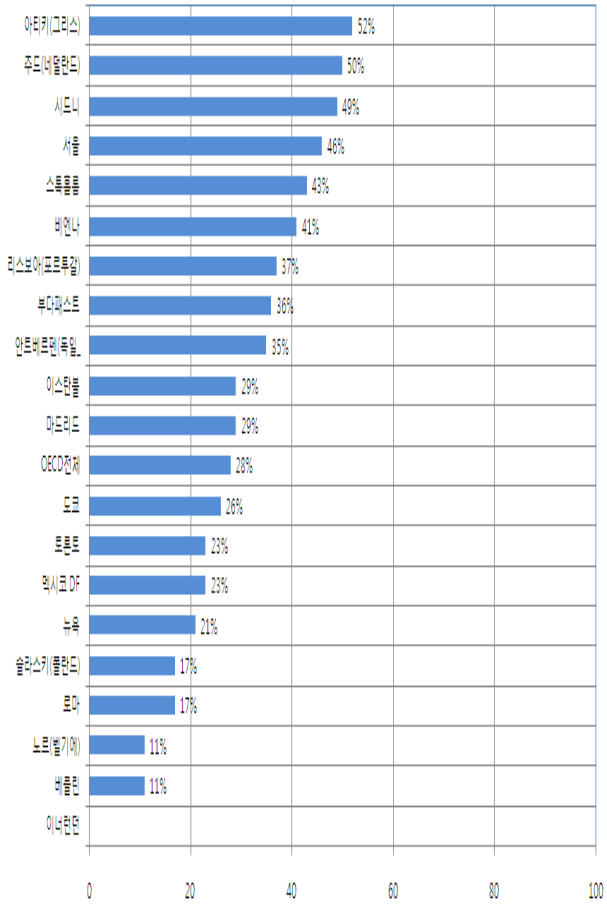
- 자금중개기능은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등이, 건축은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 등에서 높은 전문성 지수를 보임

- 가장 높은 전문성 지수를 보인 한국, 일본, 캐나다 등은 농업, 임업, 어업 등에서 높은 지수를 보임

(4) 노동참여 (Participation)

o 취업연령 인구(15~64세)의 실제 노동참여비율을 나타냄

그림 13. 지역간 노동참여비율 불균형 지수 (Gini)



4. 지역성장을 위한 주요 동인

o OECD 지역간 경제성장이 국가간 보다 큰 격차가 존재함

- 지역경쟁력 요인을 선진지역 벤치마킹을 통해 분석

o 지역의 GDP 성장요인은 **(1) 국가적 요인(National Factor)과 (2) 지역적 요인(Regional Factor)**으로 구분

① 지역 경제성과는 국가의 정책 변화 등에 따른 국가성장에 영향을 받음

② 인구변화 및 천연자원 등 지역적 특성

③ 지역의 생산성 증가

- 새로운 시장기회 포착을 통한 산업 전문화, 지역시장의 효율성 증가, 기술 및 혁신을 위한 투자 능력 등 지역 정책에 영향을 받음

o 예컨대, 한 국가의 모든 지역이 OECD 국가의 지역보다 빨리 성장한다면, 국가성장에 기인한 국가적 요인으로,

- 한 지역이 동일 국가의 다른 지역을 포함하여 다른 OECD 지역보다 빨리 성장한다면, 지역적 요인으로 분류

o 지역적 요인에 의한 지역성과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고려요소

- 생산성, 산업전문화, 고용비율, 고용참여율, 활동연령비율, 인구 등

o 이러한 6가지 성장동인은 자원(natural endowments)과 지역자산(regional assets)으로 구분됨

- **자원** : 지역 고유의 특성으로 바꿀 수 없거나 장기적 시간이 필요한 자원 (천연자원, 지리적 위치 등)

- **지역자산** : 교통, 인프라, 관광, 인적, 사회적 자본, 정책의 변화 등, 보다 높은 1인당 GDP 창출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말함

- 즉, 지역적 자산은 적절한 정책을 통해 결집될 수 있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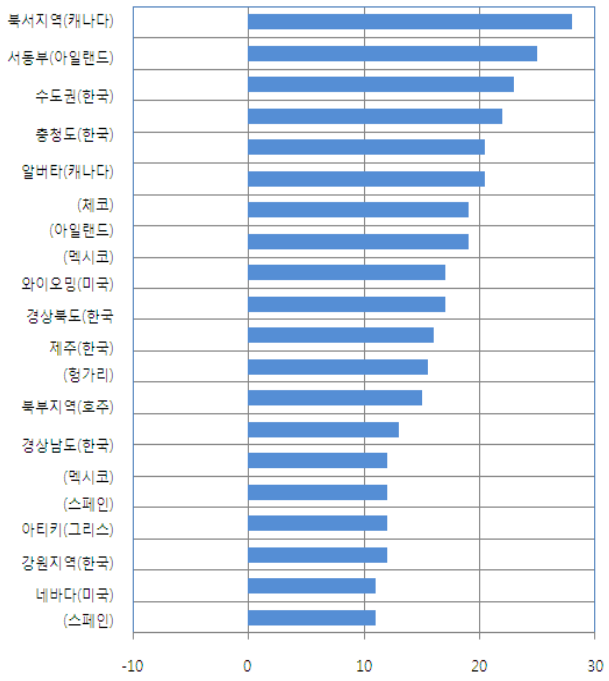
표 1. 지역경쟁력(regional competitiveness) 향상요인

GDP변화요인	자원 (Natural Endowments)	지역자산 (Regional Assets)
생산성	-	기술, 인프라 구축
산업전문성	재생불가능	재생가능 (기술, 자본)
고용비율	-	노동기술, 노동시장의 효율성 개선
고용참여비율	-	노동시장 참여
활동연령비율	취업연령인구(15~64세)의 변화	-
인구	인구 변화	이민

o 이외에도, 높은 생산성을 가진 산업부문으로의 전문성 전환, 인프라 구축, 기술향상, 보다 효율적인 생산기술 등을 통해 지역경쟁력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o '98~'03년 동안 캐나다, 아일랜드, 한국, 체코, 멕시코, 미국지역은 다른 OECD 지역에 비해 빠르게 성장함 **[그림 14]**

그림 14. 가장 빨리 성장한 OECD 지역의 GDP 비율



<OECD 지역개발 평가>

o '98~'03년 동안, OECD 전체지역(297개)의 거의 절반이 전체 OECD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가

- 이 중 2/3 지역은 지역의 성과 향상에 따른 지역적 요인에 의한 증가로 보임

o 다만, 아일랜드와 한국(경북, 제주, 경남, 강원 등)의 경우는 국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